

# 모의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논술고사 시간 : 2시간]

모집단위	학부·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수험생 유의사항】

1. 답안작성 시 제목은 달지 말 것.
2.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3. 답안지 작성 시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펜을 사용할 것. (청색/적색펜 및 연필은 사용 불가)
4. 문제지와 답안지의 문제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불일치시 0점 처리)
5.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함.
6. 답안지 수정은 원고지 교정부호를 사용하여야 함.(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음)
7. 각 문항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 감점 처리함.



## □ 제 시 문 □

[가]

말은 발굽이 있어서 눈이나 서리를 밟을 수 있고, 털이 있어서 바람이나 추위를 막을 수 있으며, 또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발을 들어 뛰기도 하니, 이는 말의 참된 본성이다. 그래서 높은 집이나 화려한 궁전일지라도 말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백락(伯樂)이 나와 “나는 말을 잘 다룬다”고 하면서 털을 태우거나 깎기도 하고 발굽을 깎거나 낙인을 찍으며, 또 굴레와 고삐로 여러 마리를 엮어서 마구간에 매어 놓으니, 말 중에서 죽는 놈이 열에 두셋은 됐다. 게다가 말을 훈련시킨답시고 굶기기도 하고 물을 안 주기도 하면서 명령대로 달리고 뛰게 길들이니, 앞에는 재갈을 물린 성가신 장식이 있고 뒤에는 채찍질의 위협이 있어서 말 중에 죽는 놈이 절반을 넘어섰다.

또 도공(陶工)은 “나는 진흙을 잘 다룬다. 둥글게 만들면 그림쇠에 꼭 맞고 네모나게 만들면 곡척(曲尺)에 꼭 맞는 다”고 하고, 목수는 “나는 마루를 잘 다룬다. 구부러지게 깎으면 곡척에 맞고 곧게 깎으면 먹줄에 맞는다”고 하는데, 진흙이나 나무의 본성이 어찌 그따위 그림쇠나 먹줄 등에 맞춰지고자 했겠는가?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대대로 “백락은 말을 잘 다루며, 도공이나 목수는 진흙과 나무를 잘 다룬다”고 칭송하고 있으니, 이 역시 인의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잘못인 것이다.

내 생각에 천하를 잘 다스리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저 백성들에게 몇몇한 본성이 있다. 즉 옷감을 짜서 입고 땅을 갈아서 먹으니 이를 동덕(同德)\*이라 부르고, 모두가 하나 될 뿐 봉당을 짓지 않으니 이를 천방(天放)\*이라고 이름 붙인다. 그러므로 지극한 덕이 있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이 여유가 있고 그 눈길은 맑고 깨끗했다. 당시는 산에 길이 나 있지 않았고 강이나 못에도 배나 다리가 없었다. 만물은 무리 지어 살면서도 사는 곳에 경계를 두지 않았으니, 새나 짐승은 때 지어 살고 풀과 나무는 제멋대로 자랐다. 그러므로 사람들도 새나 짐승을 해치는 마음이 없어서 그들을 고삐에 매어 같이 노닐 수 있었으며, 새나 까치의 등지도 올라가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무릇 지극한 덕이 있는 세상에서는 새나 짐승과 함께 살고 만물과 한 가족처럼 어울렸으니, 군자나 소인이니 하는 분별을 어찌 알겠는가? 누구나 다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의 덕에서 이탈하지 않았고, 누구나 다 욕심이 없어서 소박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소박했기에 사람들도 자기 본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성인이 나타나서 애써서 인(仁)을 행하고 허둥지둥 의(義)를 행하게 되자, 천하 사람들이 비로소 의심을 품게 됐다. 방탕한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고 번거롭게 예의를 정하니, 천하 사람들이 비로소 분열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자연의 통나무를 깎지 않고 어떻게 술잔을 만들겠으며, 백옥을 훼손시키지 않고서 어떻게 옥그릇을 만들겠는가? 마찬가지로 참된 도와 덕을 없애지 않고서 어떻게 인의(仁義)를 취할 것이며, 참된 본성을 이탈하지 않고서 어떻게 예악(禮樂)을 쓰겠는가? 또 오색(五色)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어떻게 무늬 장식을 만들 것이며, 오성(五聲)을 교란시키지 않고 어떻게 육률(六律)에 감응하겠는가? 따라서 자연의 통나무를 해쳐서 그릇으로 만든 것은 목수의 죄이며, 참된 도와 덕을 훼손해서 인의를 만든 것은 성인의 허물이다.

\* 동덕: 공통된 덕

\* 천방: 구속 없는 자유

[나]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 중에는 음식, 의복, 가전제품, 주택과 같이 우리의 사유재산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적재(私的財)도 있지만, 가로등, 도로, 교량, 공원과 같이 어느 한 사람에게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재(公共財)도 있다. 사적재는 각자가 자기 돈으로 구매하여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허락 없이 이것을 소유하거나 소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사적재는 한 사람이 소유하거나 소비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에 있어서 경쟁관계가 존재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는 한 사람을 밝혀주든 여러 사람을 밝혀주든 가로등의 밝기에는 변화가 없다. 마찬가지로 국방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도 한 사람을 보호하든 여러 사람을 보호하든 국방력의 크기에는 변동이 없다. 즉, 다른 사람의 소비가 나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소비에 있어서 경쟁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식별해 내어 그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가로등을 소등하여 그들을 배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국방의 경우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호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공공재의 특성으로 인해 생산비를 분담하였든 하지 않았든 간에 누구든지 공공재를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지 못한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아무도 자발적으로 공공재의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재의 경우, 수요는 있어도 정작 대금을 지불해야 될 책무를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급자가 공공재를 생산한다 해도 아무도 그 값을 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아무도 공급하지 않을 것이고, 공급이 되어도 가격을 지불하려는 수요자가 없을 것이므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이 생겨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고 부른다.

공공재의 가격이 시장을 통해 결정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재를 무료로 사용하려는 무임편승자(free rider) 또한 많이 생기게 되므로, 공공재의 생산비용을 판매대금을 통해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 및 기타 공공부문의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선 강제적으로 재원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강제적인 재원의 동원은 주로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적 근거는 헌법이다. 한 학자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는 무질서의 정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에 세금을 내어야 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 일부도 정부에 대가로 바치고 있는 것이다.

[다]

**아테네인:**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는 항상 지배하는 쪽이 법률을 제정한다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클레이니아스:** 참된 말씀입니다.

**아테네인:** 따라서 혁명에 승리한 민중이든 정치가들 혹은 참주\*든 그 누구라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아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클레이니아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테네인:** 그리고 법을 제정한 사람은 법을 범하는 자들을 올바르게 못한 일을 저질렀다면서 응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응징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씀입니다.

**클레이니아스:** 확실히 그럴 것 같습니다.

**아테네인:** 따라서 제정된 법률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한 나라 안에서 정의로움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과 관련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다스리고, 원로들은 젊은이들을, 고귀한 사람들은 미천한 사람들을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앞서서 논의했듯이 말이지요.

**클레이니아스:**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아테네인:** 그러면 우리의 나라를 어느 쪽 부류의 사람들에게 넘겨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나라의 관직을 독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패자들에게나 그들의 자식들에게 어떤 자리도 나누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감시합니다. 혹시라도 그들이나 그들의 자식들 중 누군가가 관직에 오르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나쁜 일들을 기억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올바른 나라가 취해야 할 방식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라 전체의 선을 목표로 제정되지 않은 법률은 부정의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법률이 일부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일 경우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패거리라고 부르지 시민들이라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올바르게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의 나라에서 누군가에게 관직을 맡길 때에는, 그 사람이 부유하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그러한 조건들, 즉 힘이 세거나, 체격이 좋거나, 훌륭한 가문 출신이라는 이유로 통치하는 자리에 앉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나라 안에서 제정된 법률에 가장 잘 따름으로써 승자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날 통치자들을 법률에 대한 봉사자로 부르자고 제안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들을 쇄신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 참주: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비합법적으로 독재권을 확립한 지배자.

[라]

한국인들에게는 남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가 늘 골칫거리다. 버젓한 직책을 지닌 사람이야 이름 뒤에 직책을 붙여 부르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두루 부를 수 있는 말이 쉬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도 이름 뒤에 ‘씨(氏)’를 붙여 부르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듯하다.

글에서는 ‘씨’가 존중의 뜻을 담을 수 있다. “선동렬은 타고난 투수다”라고 쓰는 것보다 “선동렬 씨는 타고난 투수다”라고 쓰는 것이 더 엄전하다. 그러나 선동렬 씨의 후배가 그를 “선동렬 씨!”라고 부를 수는 없다. ‘씨’는 대체로 화자보다 나이나 지위가 아래이거나 엇비슷한 사람에게만 사용된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3인칭으로 일컬을 때에 손윗사람 이름 뒤에 ‘씨’를 붙여 얘기하기도 하지만, 본인 앞에서 손윗사람을 ‘아무개 씨’라고 부르는 것은 어색한 분위기를 빚어내기 십상이다.

누군가가 대화 상대로부터 아무개 씨로 불리는 것은 종종 두 사람 사이의 위계를 함축한다. 말하자면 ‘씨’라는 말은 다분히 계급적이다. 그런 계급적 뉘앙스가 배지 않은 말을 찾으려는 노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일부 국어 운동가들이 제안한 ‘님’이다. 이를테면 상대방을 부를 때 두 사람 사이의 위계질서와 상관없이 서로 “장명수 님!”, “최윤희 님!” 하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이내, 한국어에서 접미사 ‘님’은 고유명사 뒤에 붙을 수 없다는 항변과 맞부딪쳤다. ‘부장님’이나 ‘달님, 별님’에서처럼 호칭 뒤에 붙든 의인화된 대상 뒤에 붙든, ‘님’은 보통명사 뒤에 붙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한국어의 전통어법에 들어맞든 어긋나든, 이제 ‘님’은 계급적 뉘앙스 없이 사람이름 뒤에 붙을 수 있는 대표적 호칭어가 됐다. 직장 동료들끼리 직책과 무관하게 상대를 ‘아무개님’으로 부르기로 결정한 회사도 생겼다고 한다. ‘님’의 이 대중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인터넷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들은 보이지 않는 상대방을 아무개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이 탈계급적 호칭어를 널리 퍼뜨렸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런저런 ‘님’들은 모두 접미사 혹은 의존명사이다. 현대한국어사전은 우리가 아래서 살필 대명사 ‘님’이나 명사 ‘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님’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명사 뒤에서 더부살이를 해야 한다. ‘장관님’이나 ‘이기옥 님’처럼 말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접미사 ‘님’의 생태계를 고유명사 뒤로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님’의 품사 영역 자체를 대명사로까지 확대했다. ‘님’은 인터넷 공간에서 흔히 ‘당신’의 의미를 지닌 2인칭 대명사로, 그러나 ‘당신’이 지닌 하대의 뉘앙스 없이 사용된다. “님의 주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라고 할 때의 ‘님’ 말이다. 국어사전은 아직 이런 언어 현실에 무심하다.

국어사전이 외면해 온 것은 이런 ‘현대적’ 님만은 아니다. 지금처럼 ‘님’을 접미사로 규정해 놓으면,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노래에 등장해 온 ‘님’은 본적 불명의 말이 되고 만다. 이를테면 「님과 함께」 「님은 먼 곳에」 같은 노래들의 그 ‘님’ 말이다. 만해 한용운의 저 유명한 시 「님의 침묵」의 ‘님’도 마찬가지다. 이때의 ‘님’은 ‘사모하는 사람’이란 뜻을 지닌 명사다. 현대한국어사전은 이 경우에 ‘임’을 쓰라고 우박지른다. 이른바 두음법칙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언어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 ‘임’은 사전이나 교과서 안에 보관돼 있는 일종의 ‘인공어’일 뿐, 한국인의 입에서 발설되는 것은 ‘님’이다.

[마]

<도표 1>과 <도표 2>는 우리나라 부부가구의 남편 부모와 아내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단, 가구주의 나이가 40세 이상이거나 남편이 장남인 부부가구는 제외하였다.

<도표 1> 부부가구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 유형별 분포 (%)

연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2001	37	22	5	36
2002	38	23	7	32
2003	37	19	8	36
2004	44	22	7	27
2005	44	18	7	31
합계	40	21	7	32

\* 유형 1: 남편 부모와 아내 부모 모두에게 소득이전을 행한 부부가구  
유형 2: 남편 부모에게만 소득이전을 행한 부부가구  
유형 3: 아내 부모에게만 소득이전을 행한 부부가구  
유형 4: 남편 부모와 아내 부모 누구에게도 소득이전을 행하지 않은 부부가구

<도표 2> 연간 소득이전과 가구소득의 평균 금액

(단위: 만원)

변수	평균 금액
남편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	74
아내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	40
부부가구의 가구소득	3,136
남편 부모의 가구소득	1,321
아내 부모의 가구소득	1,621

\* 소득이전 금액의 평균은 소득이전 금액이 0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문항 1>

[가]의 내용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것을 [나]-[라] 중에서 모두 찾아, [가]와의 차이점을 각각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문항 2>

어떤 사람이 [마]에 제시된 도표를 보고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와 관습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주장하였다. 당신은 이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두 입장 가운데 하나를 정한 뒤 도표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문항 3>

<보기>에 나타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입장 가운데 하나를 정한 뒤, [마]를 제외한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 보기 >

정부는 예술을 창조 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예술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다.